

남원시, 내년 '월드 드론레이싱' 유치

10월 6일~9일 개최
선수 등 40개국 1500여명 집결
세계 8000만명 이상 시청
200억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남원시가 국제항공연맹(FAI)이 주관하는 '2023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16차 FAI 총회 모습.

남원시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국제항공연맹(FAI)이 주관하는 '2023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남원시는 최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16차 FAI 총회'에서 남원시가 '2023년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드론 스포츠가 오는 2023년 10월 6일~9일 남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년에 남원에서 펼쳐질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은 40여개국 500여명의 선수단과 1000여명의 산업관계자가 집결하고 전 세계 8000만명 이상이 중계방송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돼 200억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 대회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을 남원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 드론·UAM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을 전 세계에 알

릴 수 있는 신호탄이다.

시는 드론레이싱 경기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드론축구, 드론·UAM 국제 박람회, 컨퍼런스, 드론체험, 기업부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드론스포츠, 항공기술, 지역문화 융합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UAM관계를 비롯해 세계적 기술 리더 회사들을 초청해 항공산업의 집약적인 미래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 유치는 남원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

의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지난 9월15일 전북도와 공동으로 대회 '유치위원회'를 대한민국의항공회를 통해 FAI에 제출하며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3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유치를 전 세계에 남원을 알리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항공 산업계의 한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초·중 예비 학부모 공금증 풀어드립니다

교육청, 14일~다음달 1일 '미래교육' 간담회...14개 시·군 순차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초·중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 정보 등을 알리는 교육을 이달 14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 '교육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생중심 미래교육' 간담회를 통해 예비학부모들이 서거석 교육감에게 요청하면서 마련하게 됐다.

도 교육청은 예비학부모들에게 전북교육정책의 주요사항과 학생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 계획, 진로진학 정보와 함께 학교생활 준비사항과 올바른 학습 습관, 교육과정(자유학기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일정은 15일 김제·임실, 16일 완주·부

안, 18일 고창·진안, 21일 남원·무주, 22일 장수, 29일 순창·전주, 12월1일 정읍 순이다. 군산은 29일과 30일, 익산은 14일과 28일 초·중학교로 나눠 실시된다.

현재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jbe.go.kr/parents/index.jbe)에서 교육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시와 장소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역별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됐다"면서 "이번 학부모교육을 통해 예비학부모들의 불안과 공금증을 해소하고,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1조 7천억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신정동 일원 2052년까지 신약·의료기기개발센터 등 인프라 구축

정읍시가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180만여㎡에 2023년부터 2052년까지 30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의 규모로 신약·의료기기개발센터와 신약 생산센터, 실험 동물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바이오 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를 주 품목으로 하는 충북 오송, 합성신약과 IT 기반 의료기기를 특화한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데이터·AI 기반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전북 중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과 연구기관 핵심 연구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김석환 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기존 대구·경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동등 이상의 차별화된 특성과 방안 등에 논의했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기관이 있어 신약·의료·바이오 기기 연구 및 생산 개발지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우리 지역이 대구, 오송에 이어서 제3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이오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생활문화기술교육 건강한밥상 약선요리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이 수료증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농기센터 '약선요리 전문가' 23명 배출

고창군,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생활문화기술교육 건강한밥상 약선요리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생 23명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참여형 실습 교육으로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생활 기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약선요리 전문가와 함께 정정 정읍의 식재료를 이용한 오감이 만족하는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치유하는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과정별 약선에 대한 이론교육과 계절에 맞는 재료를 활용한 약선요리 실습으로 총 8회 진

행했다.

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재료의 특성과 효능, 음식궁합 등 기초이론을 토대로 약선에 대해 익힘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보급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정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술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향토 음식 기술 전수를 위해 매년 식생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문화 조성 및 지역 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고창군은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보조하기 위한 '고창군 체육진흥 개정조례'가 최근 고창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지방체육진흥협회의'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다. 또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원 범위와 지급 기준, 군수의 관리·감독·권한 등도 마련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검증 통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와 협약

남원시가 '수치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와 협약을 맺었다.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말한다. 좌표계의 원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지구중심계 좌표로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토지조사사업으로 국토를 측량할 당시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측량했고 이후 110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아 공간정보 활용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10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5764점의 세계측지계 좌표를 관측하고 도해지역 27만8981필지의 좌표변환을 지난 4월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치지역'이란 경계점 좌표를 수치(Digital)로 등록한 지역을 말하며 경지정리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적확정지역(아파트부지, 구획정리 등)이 해당된다.

경계점이 동경측지계 좌표로 등록돼 있는 만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관내 수치지역 114개 지구 3만 9668필지의 검증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검증을 통한 좌표변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